

광주시철도공사 유도 첫 단체전 우승

2019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금' 단체전 출전 첫 시즌 전국 무대 평정 이해경·이주연·최은현 개인전 석권

광주시철도공사 여자 유도 선수단이 2019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팀 창단 7년 만에, 단체전 출전 첫해에 일궈낸 값진 우승이다.

광주시철도공사는 6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고창군청을 상대로 0-2로 뒤지다가 3-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단체전은 5명의 선수가 무차별로 승부를 벌인다. 예선 16강전부터 만연니 김성연(28)을 선봉으로 초반전에 승부를 던진 광주시철도공사는 동해시청, 안산시청, 포항시청을 연거푸 3-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최원 광주시철도공사 감독은 선수들 체력 안배차원에서 후반부에 승부를 띄웠고, 이 같은 전술은 주효했다. 이주연(23), 김성연, 이정윤(23)이 잇달

승전고를 울리며 패색이 짙던 승부를 단숨에 뒤집어 창단 첫 우승이라는 눈부신 결실을 수확했다.

광주시철도공사는 지난해까지 선수단 인원 부족으로 단체전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이정윤, 이주연, 최은현을 영입, 기존 김성연과 이해경을 포함해 5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했고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부터 단체전에 나섰다.

단체전 첫 대회였던 순천만국가정원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광주시철도공사는 5월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확인했다.

광주시철도공사는 지난 4-5일 열린 개인전에서도 -48kg급 이해경, -63kg급 이주연, -78kg급 최은현(23)이 모

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해경은 8강에서 강유정(순천시청)을 부전승으로, 4강에서 박은이(고창군청)를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진경희(포항시청)를 상대로 안아돌리기 절반승을 거둬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주연은 16강부터 4강까지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는 명지혜(부산북구청)를 상대로 반칙승을 거둬 우승을 확정했다.

최은현도 16강에서 흥진주(충북도청)를 절반승, 8강에서 박은이(고창군청)에 반칙승, 4강에서 박유진(경남도청)에 한판승을 거둔 뒤 결승에서 황예슬(제주도청)에 기권승을 거두면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다.

최원 광주시철도공사 유도단 감독은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적인 지원과 체육회의 전문적인 운영, 광주시 유도회의 관심 속에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도 실업팀 중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이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쳐준 선수들이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철도공사가 6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하계 전국실업 유도최강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원 감독, 최은현, 이해경, 김성연, 이정윤, 이주연. /광주시철도공사 제공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8월 7일 수요일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FINA 마스터즈대회 이색 규정

알고보면 더 재밌다!

경영 세계신기록 60일 이내 본인이 신청해야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는 다리 입수만 허용

수구팀 최연소 선수 나이로 팀 연령그룹 결정

마스터즈수영대회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기량이 뛰어난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선수권대회와는 달리 마스터즈에는 안전과 대회성격 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그 가운데 이색 규정을 살펴본다.

경영에서 개인경기는 25세부터 필요한 나이까지 5년 단위로 연령그룹을 추가한다. 즉 25-29, 30-34, 35-39세 등이다.

경영은 팀원 나이를 합산해 정한다. 참고로 마스터즈 경기와 관련해 경기개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의 실제 나이가 산정된다.

혼자 수영하는 선수없이 레인이 할 수 있도록 연령그룹 및 성별을 섞을 수 있다.

경영의 연령그룹별 및 성별 마스터즈 세계 신기록은 신청서 조항에 따라 100분의 1초 단위까지 인정되고 유지된다. 자동계측장비로 측정되거나 자동계측장비가 오작동할 경우 반자동계측장비로 측정된 기록만 인정된다.

마스터즈 세계기록 등록신청은 경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선수가 FINA 공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오픈워터수영은 5km 까지로 제한한다. 풀장 수온은 경기시작 전 30분 이내에 측정돼야 하며 최소 18도, 최대 31도여야 한다. 수온측정은 코스 중간지점까지 접근해 40cm 깊이의 수온을 확인한다.

마스터즈 다이빙의 경우 10m 플랫폼에서는 다리 입수만 허용되고 연기 날아도는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싱크로나이즈 다이빙에서 어느 한 선수가 50세 이상일 경우 10m 플랫폼 다이빙은 다리 입수로 제한된다.

수구는 팀의 최연소 선수 나이로 팀 연령그룹이 결정된다. 팀 최연소 선수 나이보다 많은 연장자 선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연령그룹은 30세부터 5년 간격으로 나뉜다.

아티스틱 수영에서 듀엣은 선수들의 평균 나이로 결정된다. /황애란 기자



프로처럼 자신있게 6일 오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30세 이상 39세 이하 듀엣 테크니컬을 출전한 한국의 김성은과 김희진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조선대 이진용·광주여대 김민서 아시안컵양궁 금·동

시니어 국제대회 첫 메달

조선대학교 이진용(1년)과 광주여자대학교 김민서(1년)가 2019 아시안컵 양궁 2차 대회에서 각각 남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진용과 김민서 모두 시니어 국제대회 첫 메달이다.

이진용은 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단체전에 김현종(공주시청), 김필중(한국체대 1년)과 함께 출전, 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6-2(49-54 51-50 55-54 58-5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남자 단체 예선에서 1.976점으로 1위를 한 뒤 8강에서 홍콩을 6-0(55-51 57-54 56-54), 일본을 5-3(57-51 57-58 55-55 56-5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첫 세트를 내줬지만 2,3세트를 1점 차로 앞섰고 4세트는 3점을 앞서며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진용은 개인전에서는 8강에서 탈락했다. 예선에서 5위(655점)를 해 본선에 오른 이진용은 1라운드에서 필리핀 펠리시아네에 7-1(27-25 26-26 29-28 27-25), 2라운드에서 말레이시아 출 케펠리에 7-3(28-28 24-30 29-25 28-26 28-27)으로 승리했으나 8강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마드에 슛오프 끝에 5-6(29-26 25-27 28-28 27-29 30-36 9-9*)으로 패했다.

김민서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개인 예선에서 1-3위를 한 김민서(665점), 장민희(인천대 2년·660점), 이가현(대전시체육회



·658점)이 단체전에 나서 1위(1,963점)로 예선을 통과했다. 8강에서 홍콩을 6-2(52-56 56-50 54-46 53-42)로 꺾었으나 4강에서 말레이시아에 2-6(52-53 54-47 49-50 51-54)으로 패해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렸다. 하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6-

2(57-54 51-54 55-51 54-52)로 이겨 동메달을 확정지었다.

김민서는 이어 열린 개인전 3-4위전에서 슛오프 끝에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민서는 개인전 4강에서 차승희(경희대 2년)를 만나 3-7(26-26 25-27-25 26-29 27-28)로 겨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팀 동료인 장민희를 만났으나 슛오프 끝에 6-5(27-27 29-26 29-28 15-26 27-28 9*-9)로 승리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녀 개인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차승희가,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필중이 각각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남녀 국가대표 상비군이 출전했다. /최진화 기자

중고정구연맹회장기 동신고 단체전 우승

동신고가 6일 강원도 횡성군 섬강정구장에서 열린 제55회 한국중고등학교 정구연맹회장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고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단식에서 은메달, 그리고 복식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1.2학년 선수들로만 일군 값진 성과다.

동신고는 단체전 결승에서 문경공고를 3-1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복식 결승에서는 정정일(2년)-안하운(2년) 조가 음승고 오재진-조성훈 조에 3-4로 아쉽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다른 복식멤버인 조성준(1년)-주영찬(1년) 조는 동메달을 기록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6일 단식에 나선 조성준은 결승에서 오승연(문경공고)에 0-3으로 지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주장인 정은기(2년)와 정정일은 지난 6월 열린 제1회 아시아정구주니어선수권대회 파견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제1회 아시아정구주니어선수권대회는 오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다. /최진화 기자

금의환환 고진영 첫 고국 나들이 제주서 국내 대회 정상 노크

세계랭킹 1위이자 올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전에 오른 고진영(24)이 올해 첫 고국 나들이에 나선다.

고진영은 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 동·서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8억 원)에 출전한다.

고진영이 K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루키 시즌을 보내면서도 고진영은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출전했다. 두 대회는 모두 고진영의 후원사다.

작년과 올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 명단에 오른 고진영은 다른 선수나 다름없다.

작년 이맘 때 고진영은 'LPGA투어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유망주'였다. 일찌감치 1승을 올려 신인왕을 굳혔지만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인상이 더 짙었다.

6일 귀국한 고진영은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주로 직행,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회장배 전국카누 여자부 종합 준우승

전남도청 카누팀이 최근 충남 부여 백제호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포함해 남녀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부는 출전경기에서 모두 입상한 김소현(23)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소현은 K-2 200m에서 임성화(25)와 조를 이뤘 39초015의 기록으로 김진아-황현아(부여군청) 조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소현은 뒤에는 K-1 500m에서도 1분57초744의 기록으로 끝났으나, 최란(웅진군청·1분57초691)에게 아쉽게 0.05초 차이로 뒤져 은메달 획득에 만족했다.

전남도청은 김소현, 임성화, 이민아(19), 조민지(22)가 출전한 K-4 200m와 K-4 500m에서 종합우승팀 부여군

청에 이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남자 일반부에서 최지성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각각 획득하는 경사를 일궈냈다.

C-1 1,000m에 출전해 4분01초67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최지성은 이어 C-1 200m에서도 41초06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최진화 기자